

唐의 東北亞 戰略과 三國의 對應

金昌錫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강사)

- 머리말
- 唐의 東北亞 支配戰略
- 三國의 對應
- 맺음말

1. 머리말

665(문무 5)년 가을, 熊津 就利山(지금의 충남 공주시 연미산)에서는 3개국 대표들의 會盟儀式이 열렸다. 신라의 文武王과 백제 의자왕의 아들 扶餘隆 그리고 당의 勅使 劉仁願이 각국을 대표하여 참석했다.

나지막한 정상부 한복판에는 성대한 제사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나아가 제단 앞에 섰다. 드디어 희생으로 준비한 白馬의 목을 자르고, 天神과 地神 그리고 하천과 계곡의 神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이날의 모임을 고하는 제사를 모셨다. 이어서 세 사람은 신성한 백마의 피를 나눠 마시고 다시

그 피를 입 언저리에 바른 다음 劉仁願이 세 사람을 대표해서 맹약문을 낭독했다.

百濟는 高句麗와 결탁하고 倭와 통하여 잔학한 행동을 일삼으며 선량한 이웃인 新羅를 침략하여 변방을 소란케 하였다. (중략) 이에 중국의 天子는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고 무고한 백성을 구하기 위해 백제를 정벌했다. (중략) 마땅히 그 宗廟社稷을 없애고 왕실의 뿌리를 뽑아서 후세에 교훈으로 삼아야 하지만, ‘유순한 자를 품에 안고 끊어진 것을 잇는 것’ 또한 천자의 본분이므로 扶餘隆을 熊津都督으로 삼아 그 제사를 잇도록 했다. 그러므로 백제는 앞으로 신라와 서로 의지하여 숙원을 풀고 화친하며 황제의 뜻을 받들어 길이 변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중략) 만일 맹약을 어겨 다른 마음을 품고 서로 군사를 일으킨다면 백가지 재앙이 닥칠 것이며 더 이상 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제사가 끊겨 자손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중략) 하늘은 살피사 복을 내려주시기를 ……¹⁾

낭독이 끝나자 맹약문은 신라 측에 넘겨지고 제수용품과 폐백을 제단 근처에 파묻는 것으로 회동은 끝을 맺었다. 당나라측 대표와 부여융은 長安으로 돌아가고, 문무왕 일행은 맹약문을 가지고 金城으로 돌아가 宗廟에 봉안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된다. 660(무열 7)년에 사비성이 함락되었으니 이 때는 이미 백제가 멸망한 뒤인데 어떻게 국제무대에 백제가 재등장할 수 있는가? 그것도 亡國의 王子가 신라 國王과 어깨를 나

1) 『三國史記』卷6, 新羅本紀6 文武王 5年 “其盟文曰 往者 百濟先王迷於逆順 不敦鄰好 不睦親姻 結託高句麗 交通倭國 共爲殘暴 侵削新羅 剽邑屠城 略無寧歲 天子憫一物之失所 憐百姓之無辜 (中略) 皇赫斯怒 龔行弔伐 旌旗所指 一戎大定 (中略) 然懷柔伐叛 前王之令典 興亡繼絕 往哲之通規 事必師古 傳諸曩冊 故立前百濟大司稼正卿扶餘隆 爲熊津都督 守其祭祀 保其桑梓 依倚新羅 長爲與國 各除宿憾 結好和親 各承詔命 永爲藩服 (中略) 若有背盟 二三其德 興兵動衆 侵犯邊陲 明神監之 百殃是降 子孫不育 社稷無守 禮祀磨滅 (中略) 神之聽之 是饗是福”.

란히 하고 회맹에 참석했다. 신라는 또 어떤가? 戰勝國임에도 불구하고 국왕이 직접 행차하여 敗戰國 대표와 동렬에 섰고, 백제와 화친을 다짐하는 치욕적인 맹약에 서명했으며 그 원본을 받들고 귀국해야 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회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本考는 위와 같은 의문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실마리는 新羅와 百濟 대표단 사이에 자리잡은 唐 皇帝의 칙사가 쥐고 있는 듯 하다. 회맹을 주선한 것도 당이고 맹약문을 작성한 것도 당 측이었던 것이다. 唐나라는 동아시아의 대제국으로서 당시 세계 최고수준의 文明을 이룩하였고 唐나라 軍士도 大帝國의 위상에 걸 맞는 무장과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唐이 만주와 한반도 지역을 席卷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을까? 그리고 新羅를 포함한 삼국민은 이에 어떻게 대응했을까? 三國 抗爭 과정에서 唐과 군사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新羅의 외교전략과 고민, 그리고 이를 활용하여 東北亞 지역을 명실상부하게 장악하려는 唐의 대외전략이 상호 조화, 충돌하면서 7세기 중엽의 동아시아 국제전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陞平의 회맹의 外交·軍事의 背景과 당 점령정책에 맞선 三國民의 對應 樣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小考의 목적이다.

2. 唐의 東北亞 支配戰略

(1) 唐의 對外政策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넓은 영토는 물론이고 律令에 입각한 지배체제와 이란 계통의 문화까지 흡수한 盛唐文化가 주변 여러 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면에서 그러하다. 중앙정부는 전국을 15개의 道와 350여 개의 州, 1600개에 이르는 縣으로 나누어 다스렸고 변

경의 요충지대에는 都督府를 두었다.²⁾

그러나 당 정부는 이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 영역을 둘러싸고 突厥, 鐵勒, 吐蕃, 契丹, 靺鞨, 高句麗, 百濟 등 여러 족속과 나라들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록 중원을 장악한 統一帝國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세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제국의 안정과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였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들을 武力으로 제압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피지배국의 반발이라는 위험이 따르므로, 역대 중국 왕조는 차선책으로 주변 나라들과 외교적인 상하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았다. ‘冊封’이라고 하여 중원의 天子가 주변 왕국의 王을 마치 자신의 직속 신하인 것처럼 관직을 내려 封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624년 당이 고구려 榮留王을 요동군왕, 백제 武王을 대방군왕, 신라 眞平王을 낙랑군왕으로 봉하는 식이다.³⁾ 책봉을 받은 왕은 그 대가로 천자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고 천자국을 지키는 변방의 울타리(藩屏)로서 異域 오랑캐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충직한 자세를 평상시에도 보여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朝貢을 바친다. 이것이 황제국과 왕국의 상하관계를 틀 지우는 이른바 朝貢-冊封關係이다. 여기에다 큰 나라는 작은 나라를 사랑하고 작은 나라는 큰 나라를 섬겨야 한다는(字小事大) 유교적 윤리⁴⁾ 끌어 붙여 국제적 불평등 관계를 합리화했다.

그 저변에는 周代 이래 중국의 전통적인 대외정책 논리 가운데 하나인

- 2) 張國剛, 1987 『唐代官制』 三秦出版社. 翦伯贊(이진복 등 옮김), 1990 『中國全史』 학민사.
 3) 『舊唐書』 卷1, 本紀1 高祖 “(武德)七年 春正月己酉 封高麗王高(建)武爲遼東郡王 百濟王扶餘璋爲帶方郡王 新羅王金眞平爲樂浪郡王”.
 4) 『孟子』 卷2, 梁惠王 下の 다음 문답이 대표적인 예이다. “交鄰國有道乎 孟子對曰 有 惟仁者爲能以大事小 是故湯事葛 文王事昆夷 惟智者爲能以小事大 故太王事獯鬻 句踐事吳 以大事小者 樂天者也 以小事大者 畏天者也 樂天者保天下 畏天者保其國 詩云 畏天之威 于時保之”.

華夷論이 깔려 있었다. 즉 中華와 夷狄를 준별하지만 오랑캐 땅을 직접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속시킨 상태에서 中華 帝國이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명분상의 우위만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는 간접 지배를 지향하는 것으로 近代 이후로 치면 孤立主義 외교노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직접 통치를 포기하는 대신 조공-책봉관계라는 외교 형식을 통해 중화 조정은 멀리 떨어진 이민족 국가에게 굴레를 씌우고 內地에서 그 고삐를 잡고 조종할 수 있는(羈縻政策) 여지가 있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遠隔地 交易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직적 국제질서는 삼국시기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듯이 名分과 形式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는 각국의 현실적인 힘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외교관계가 좌우되었다.⁵⁾ 이러한 화이론적 천하관은 儒家 사상가들의 전통적인 대외관이며, 역사적으로 보면 중화세력이 약해졌을 때 대두되곤 했다.

그런데 당나라는 형식적인 상하관계에 만족하지 않고 名實相符한 지배·종속관계를 원했다. 특히 高句麗와 같이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배후에서 당을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무력 정벌을 통해서 정권을 전복하고 이를 직접 지배하려는 욕구가 절실했을 것이다. 이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또 하나의 대외정책 논리인 德化論이다. 이에 따르면 중국의 天子가 온 천하의 주인이고 주변국의 人民은 그 지배를 받아야 할 어린아이(赤子)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중국 황제는 자신의 德, 즉 法律과 武力을 가지고 세계를 教化하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바로 주변 국가와 종족에 대한 征服과 統治를 의미하며 더 이상 華와 夷의 구별과 차이는 무의미해지고 이들 모두는 皇帝의 臣民으로 간주된다. 對外 膨脹主義, 介入主義 路線에 해당하는 덕화론은 法家和 墨家の 논리이며, 주변 지역에 대한 정치적 압력과 무력 침공, 郡縣化로 실현되었다.⁶⁾

5) 盧泰敦, 1984,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6) 이상 조공-책봉체제를 중심으로한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그 변화과정에 대해서는 西嶋定生, 1962, 「六-八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 古代2 岩波書店. 金翰奎,

새롭게 중국 대륙을 통일한 대제국이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이처럼 공세적인 방향을 취하자 자연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긴장하여 자구책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예상할 수 있다. 하나는 당측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상하관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으로 맞서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것이다. 新羅는 앞의 방책을 택했고, 高句麗는 金春秋가 제안한 신라와의 연합을 거부하고 후자를 택했다가 결국 멸망했다. 그리고 百濟는, 자신에 대한 최대의 위협세력을 제거하려는 신라의 공세와 백제 점령을 통해 고구려를 앞, 뒤에서 협공하려는 당의 전략에 의해 고구려보다 8년 앞서 붕괴되었다.

唐은 정복을 통하여 새롭게 편입된 지역에 州와 縣을 설치하고 이를 통할하는 都護府, 都督府를 두어 다스렸다. 마치 內地를 통치하는 것처럼 주변의 藩國에도 지방제도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당 중심의 一元的인 世界秩序를 구축하려고 한 것이다.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중앙에서 地方官을 직접 파견하는 형태와 現地人을 임명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변용되었음은 물론이다.

668(문무 8)년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나라는 그 땅에 9개의 도독부와 42주, 100현을 두었다. 그리고 平壤에 安東都護府를 설치하고 당나라 장군 薛仁貴를 都護로 삼아 2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고구려 지배를 총괄토록 했다. 그 아래 都督과 刺史, 縣令은 親唐的인 고구려인을 임명하여 중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함께 다스리도록 했다.⁷⁾ 고구려 및 백제 주둔군의 구성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대부분은 一般 農民 출신으로서 府兵制에 따라 징집된 병사들이었다. 이들은 軍役 부담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

1982, 『古代 中國의 世界秩序 研究』, 一潮閣 참조.

7) 『舊唐書』卷39, 志19 地理2 河北道 安東都護府 “總章元年九月 司空李勣平高麗 高麗本五部 一百七十六城 戶六十九萬七千 其年十二月 分高麗地爲九都督府 四十二州 一百縣 置安東都護府 於平壤城 以統之 用其酋渠爲都督刺史縣令 令將軍薛仁貴 以兵二萬 鎮安東府”.

받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해서 당의 군사 조직은 고도의 통일성을 갖추고 있었다.⁸⁾

이들이 취한 첫 번째 점령정책은 고구려의 有力 人物과 그 家族들을 강제로 당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다. 669(문무 9)년에 2만 8200호를 옮겼는데 이들은 주로 수도인 平壤 일대와 遼東 지역의 주민이었다. 고구려 말기에 전국 戶數가 약 70만에 이르렀으니 이 때 옮겨진 인구는 그 1/20 정도에 해당하는 방대한 규모였다. 더욱이 이들은 王族과 最高 貴族을 포함한 유력자층이 대부분이었다.⁹⁾ 고구려 부흥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세력들을 아예 고구려 땅에서 분리시킴으로써 후환의 싹을 사전에 제거해버린 것이다.

百濟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蘇定方은 泗泚城 함락 후 義慈王과 王子 그리고 수십 명의 臣僚와 함께 1만 2,800여 명의 백제 인민을 長安으로 데려갔다.¹⁰⁾ 한편 당나라 침략군에 맞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로잡힌 이들은 有功者에게 상으로 분배되었다. 요즘도 종종 벌어지는 일이지만 당시 전쟁에서는 반드시 掠奪이 수반되었다. 唐 太宗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그 장수였던 李世勣은 “병사들이 화살과 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다퉈 나아가 싸우는 것은 노획물을 탐내기 때문”이라고 했다.¹¹⁾ 상대방에 대한 약탈은 공공연하게 이뤄졌고 인간의 勞動力도 예외 없이 그 대상이 되었다. 이들은 당에 끌려가 奴隸가 되었다.

8) 菊池英夫, 1970 『府兵制度の展開』 『岩波講座 世界歴史』 5, 岩波書店.

9)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 『韓祐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10) 『舊唐書』 卷199 列傳149 東夷 百濟國 “顯慶五年 命左大將軍蘇定方 統兵討之 大破其國 虜義慈 及太子隆 小王孝演 僞將五十八人等 送於京師”

11) 魏 策, 卷199, 列傳149 東夷 高麗, “李勣言於帝曰 戰士奮萬爭先 不顧矢石者 貪虜獲耳 今城垂 拔 奈何更許其降 無乃辜將士之心乎”.

(2) 唐軍의 占領政策

비록 머나먼 異國 땅으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故土에 남아있는 遺民들도 당나라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다. 고구려 지역은 평양의 안동도호부가 2만의 무력을 기반으로 통치했고, 백제 지역에는 웅진도독부를 중심으로 5개의 도독부를 두어 다스렸으며 사비성에는 劉仁願의 군사를 주둔시켰다.¹²⁾ 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접수한 나라를 강력한 軍政 體制를 이용하여 다스리는 것은 이 시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패전국의 文化財를 훼손하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예로 夫餘 ‘定林寺 5層石塔’에 蘇定方の 업적을 새겨놓은 것을 들 수 있다. 종래 이 탑을 당나라 측에서 백제 평정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라고 하여 ‘平濟塔’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백제 말에 세워진 백제의 석탑이 분명하다. 그런데 당 점령군이 새긴 내용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소정방이 백제의) 사나운 풍습을 바꾸어 심오한 방략을 받아들이게 했고 (중략) 5도독부 37주 250현을 두고 24만 戶 620만 口를 정리하여 호적에 올렸으니 오랑캐의 풍속이 모두 바뀌었다.¹³⁾

여기서 戶口를 정리했다는 것은 단순히 人口 調査를 실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고대사회에서 인간의 노동력은 곧 國家財政을 운영하기 위한 租稅 收取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당나라의 백제 정벌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12) 魏 書, 卷199, 列傳149 東夷 百濟國 “其國舊分爲五部 統郡三十七 城二百 戶七十六萬 至是 乃以其地 分置熊津馬韓東明等 五都督府 各統州縣 立其酋渠爲都督刺史及縣令 命右郎將王文度 爲熊津都督 總兵以鎮之”.

같은 책, 卷84 列傳34 劉仁軌 “五年 高宗征遼 令仁 軌監統水軍 以後期坐免 特令以白衣隨軍自 時蘇定方既平百濟 留郎將劉仁願 於百濟府城 鎮守”.

13) 『大唐平百濟國碑銘』, “仍變斯獮俗 令沐玄猷 (中略) 凡置五都督 卅七州 二百五十縣 戶廿四萬 口六百廿萬 各齊編戶 咸變夷風”.

한반도 서남부의 비옥한 土地와 勞動力을 새로운 收取源으로 확보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조세와 노동력을 걷기 위한 기초 자료가 우선 필요했던 것이다.

위의 기록처럼 백제가 멸망한 직후에 새로운 호구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의문이고 소정방의 업적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620만 구라는 인구 수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쨌든 정복자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새로운 占領地의 現況을 파악하고 싶었을 것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舊百濟의 호적자료를 접수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전쟁 기간의 변동과정을 반영했을 터인데, 전쟁 직후의 무질서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역시 당나라 軍隊의 武力과 일사불란한 行政體系가 호구조사의 강력한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이제 백제 유민은 당 조정에 租稅를 납부하고 당 황제의 보살핌을 받는 당나라의 臣民이 되었고 ‘오랑캐의 풍속이 모두 바뀔’ 지경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점령군은 이러한 強壓策과 함께 宥和策도 준비하기 마련이다. 끝까지 항전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동원하여 拔本塞源함으로써 無力化시키고, 우호적인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주면서 침략의 앞잡이로 내세운다. 그리고 중립적인 인사 혹은 잠재적인 저항세력에 대해서는 이들의 敵愾心을 약화시키고 환심을 사 저항의식을 마비시키고자 한다. 적으로써 적을 제압하는 以夷制夷 政策, 복속국에 대한 分割統治 정책은 역대 침략국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배전략이었으며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인다.

熊津都督 劉仁軌가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고 저수지를 복구하며 빈궁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孤兒와 老人을 보살폈다는 것은¹⁴⁾ 戰後 復舊事業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백제 유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施惠 措置의 성격 을 갖고 있었다. 이보다는 유인제가 백제 땅에 당나라의 社稷을 세우고 당

14)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20年 “仁軌始命墜骸骨 籍戶口 理村聚 署官長 通道塗 立橋梁 補堤堰 復坡塘 課農桑 賑貧乏 養孤老 立唐社稷 頒正朔及廟諱 民皆悅 各安其所”.

의 月曆을 쓰도록 한 사실이 더 중요하다. 당나라는 궁극적으로 백제 유민들의 精神과 文化를 바꾸어서 충직한 唐 皇帝의 臣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정복자의 압도적인 물리력과 先進 文物은 당국민들에게 커다란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 결과 한 나라의 風習과 社會氣風이 바뀌기도 한다. 古朝鮮의 예를 보면, 원래 고조선 사회는 「犯禁八條」라는 처벌 규정을 갖고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중에서 殺人, 傷害, 竊盜에 관한 조항만이 전해지고 있다.¹⁵⁾ 나머지 다섯 조항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취볼 때 叛逆, 國家에 대한 義務 이행, 姦淫, 妬忌, 貸借 관계 등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¹⁶⁾ 그리고 이러한 慣習法 조항은 곧 그 사회의 운영원리와 풍습을 반영해 주고 있다.

중국측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고조선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만약에 前科者가 되면 배우자를 구하기도 어려웠으므로 도둑이 없어 집에 문을 잠가둘 필요가 없었다고 한다. 부인들도 정조를 지켜 음란하지 않았다. 그런데 고조선이 망하고 漢 나라가 그 땅에 漢四郡을 설치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초기에는 중국 내지에서 파견된 관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고조선 사람들은 문을 닫아걸지 않았는데, 商人을 비롯한 한나라 사람들이 그 땅에 진출하면서 밤에 도둑질을 하는 등 犯法을 일삼아 풍속이 점차 야박해졌다. 이를 규제하기 위한 처벌 조항도 늘어나서 한 사군이 설치된 다음에는 「범금」이 60여 항목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¹⁷⁾

그만큼 고조선 사회는 큰 변화를 겪었고 異民族 治下에서 古朝鮮 遺民들

15) 『漢書』卷28, 地理志8, “樂浪朝鮮民 犯禁八條 相殺以當時償殺 相傷以穀償 相盜者 男沒入爲其 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 人五十萬 雖免爲民俗猶羞之 嫁取無所繼 是以 其民終不相盜 無門戶 之閉 婦人貞信不淫辟”.

16) 李丙燾, 1976 『箕子朝鮮의 正體와 所謂 ‘箕子八條教’에 대한 新考察』, 『韓國古代史研究』博英社.

17) 『漢書』卷28 地理志8 “郡初取吏於遼東 吏見民無閉戚 及賈人往者 夜則爲盜 俗稍益薄 今於犯 禁多 至六十餘條”

이 느끼는 가치관의 혼란도 심각했을 것이다. 靑銅器時代부터 이어지던 고조선 文化의 變質과 傳統의 破壞는 또 어떠했을까? 백제에 대한 점령정책을 추진한 결과 ‘오랑캐의 사나운 풍속이 모두 바뀌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외래 침략자들이 중국에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침략자들의 지배정책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갖고 있다. 피정복국의 주권 침탈은 물론이고 문화전통과 사회기풍까지 변개시키는 부정적 측면과 함께 새로운 문물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복자가 中國 王朝일 경우 內地에서 파견된 高級 官吏와 현지 統治機構는 중원의 선진문화를 이식하는 파이프 역할을 했다.

樂浪郡이 좋은 예이다. 한사군 중 나머지 3개 군이 일찍이 폐지된 데 비해 낙랑군은 고구려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400년 넘게 존속했다. 그 治所는 고조선의 수도였던 平壤 지역에 있었고 여기에 郡 太守 이하 고위 관료들과 軍官, 상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살았다. 이들이 남긴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그 문화의 수준은 결코 중국 본토에 뒤떨어지지 않았다. 평양 석암리 출토 金製 鈔帶는 화려한 낙랑 문화의 극치를 보여준다.

문화는 수준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속성을 갖고 있다. 낙랑의 선진문물은 고조선 유민은 물론 주변 나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것이 鐵器文化이다. 이미 古朝鮮 後期부터 철기가 사용되었고 衛滿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중국의 선진적인 철기문화가 도입되었지만, 본격적인 철기의 생산과 보급은 낙랑을 제쳐두고 생각하기 어렵다. 당시 한나라는 소금과 鐵을 국가에서 專賣했으므로 漢 郡縣도 이에 대한 관심이 컸다.

낙랑군은 멀리 현재의 경남 서부에 자리잡고 있던 弁韓 지역으로부터 철을 수입해 갔다. 鐵錠이라고 하는 덩이쇠 형태로 수입된 철은 本土로 보내거나 일부는 낙랑 자체에서 가공하여 각종 무기, 농기구, 공구를 만들어 썼다. 변한 지역의 철은 이외에도 馬韓, 東濊, 倭 등에 수출되었지만 역시 가

장 중요한 고객은 낙랑군이었다. 당시 낙랑군은 중국 東方政策의 전초기지로서 정치·군사적 거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부터 특산물을 공급받는 중요한 물품수입 창구였다. 그래서 낙랑군과 뒤에 황해도 지역에 설치된 帶方郡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여러 나라들과 對外交易網을 형성하고 있었다.

변한은 철을 수출하는 대신 낙랑을 통해서 중국제의 고급 물품, 즉 칼, 쇠뇌 등 武器類와 裝身具, 가볍고 단단한 土器 등을 수입했다. 三韓 지역의 철 생산은 衛滿朝鮮이 멸망한 후 그 유민들이 남하하면서 본격화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한 군현과의 교역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게 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外交交渉과 交易을 통해 漢帝國의 화려한 물품을 획득한 小國의 우두머리들은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 권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¹⁸⁾

이밖에도 낙랑의 古墳文化, 漆器나 土器 등 각종 생활용품, 漢字 文化는 우리 고대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낙랑군 지역에는 한나라 商人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군현 관리들의 비호 아래서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인 듯 하다. 『史記』平準書와 貨殖列傳, 『漢書』食貨志를 검토해 보면, 한나라 때의 국내상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활발하고 그 규모도 컸다. 새로운 정복지에 진출한 내지 상인들은 본토에서의 경험을 살려 민간 차원의 교역을 벌여나갔다. 한반도 각지에서 발견되는 中國 古代貨幣들 중에는 이들이 지불한 代金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¹⁹⁾

이처럼 占領軍 혹은 官吏들을 통한 선진 문물의 도입은 우리 古代文化의 발전에 자극제가 되었음에 틀림없다. 순수하게 ‘固有한 民族文化’란 사실 환상에 가깝다. 주변 나라들과 交流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요소가 흘러 들어

18) 삼한 및 한군현의 대외 교역체계에 대해서는 李賢惠, 1994 『三韓의 對外交易體系』 『李基白先生古稀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8 『韓國 古代의 생산과 교역』一潮閣 참조.

19) 한반도 지역에서 출토된 중국 고대화폐의 분포 양상과 사용자, 용도 등에 관해서는 김창석, 2001 『삼국 및 통일신라의 현물화폐 유통과 재정』, 『역사와 현실』42 참조.

오고 이것이 기성의 문화와 결합하여 전통문화가 풍요로워지고 새로운 진전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주민들의 직접 移動을 통해서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민들이 어떤 성격의 집단이고 그들의 문화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달리 나타난다. 침략세력이 들어와서 점령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이 노리는 바는 명확하다. 최대한의 收奪과 支配의 永續化가 바로 그것이다. 그 과정에서 文物의 교류는 불가피한 것이고 이를 통해 앞선 문화요소들이 흡수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지배와 중화주의로 포장된 文化 優越主義의 부산물일 뿐이다. 더욱이 三國時期 末이 되면 대륙과의 문화적 격차도 좁혀져서 고구려나 백제 유민들에게 미치는 중국문화의 혜택은 전 시기보다 그 의미가 훨씬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민족 지배자는 이처럼 施惠者와 收奪者의 두 얼굴을 갖고 있지만 이것은 표면상의 양면성에 불과하고 그 저변에는 일관되게 침략자의 면모가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관건은 侵略主義의 본질을 간파하고 先進技術이나 物質文化만을 선별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이는 복속민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했다.

3. 三國의 對應

(1) 復興運動과 그 挫折

唐의 강압적인 占領政策은 곧바로 三國民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측 史書에 실린 백제 장군 黑齒常之의 전기를 보면, 唐軍이 군사를 풀어 대대적으로 노략질을 일삼고 많은 백제 壯丁들을 살해하므로 흑치상지가

두려워 달아나서 도망자들을 규합, 부흥운동을 일으켰다고 한다.²⁰⁾ 열흘 동안에 부흥군에 가담한 자가 3만 여명이 되었으며 이들은 任存城(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을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200여 성을 되찾았다. 여기에는 왕족인 福信과 승려 道琛도 참여하여 백제 멸망 2개월 여 만에 사비성을 포위하고 다섯 달 정도 나당연합군을 공략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휘부의 분열로 663(문무 3)년에 周留城(지금의 충남 한산 부근)과 임존성이 함락되자 이후 백제 부흥운동은 잦아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흑지상지는 극적인 변신을 보여준다. 그는 원래 達率까지 오른 백제 장군으로 義慈王이 항복하자 휘하 병졸을 거느리고 당나라에 歸附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대로 蘇定方 부대의 횡포에 반발하여 무리를 이끌고 임존성에서 擧兵하게 된다. 그런데 당나라가 白江(지금의 금강) 하구에서 倭가 파견한 백제 지원군을 격파하는 등 전세가 불리해지자 다시 항복했다. 여기에는 唐 高宗이 사신을 파견하여 회유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상황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역시 復興軍 장수 출신인 沙吒相如와 함께 임존성 공략의 선두에 서게 된 것이다. 결국 城은 함락되고 장수 遲受信은 처자도 버려 둔 채 고구려로 피신하였다.²¹⁾ 마지막까지 남아 백제 부흥을 꿈꾸던 유민들은 살해되거나 노예로 분배되는 등 가혹하게 처리되었음이 분명하다.

당나라는 敵軍의 일부를 포섭하여 자신의 走狗로 내세움으로써 세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는 상대편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을 활용

20) 『舊唐書』卷109, 列傳59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長七尺餘 驍勇有謀略 初在本蕃 仕爲達率 兼郡將 猶中國之刺史也 顯慶五年 蘇定方討平百濟 常之率所部 隨例送降款 時定方繫左王及太子隆等 仍縱兵劫掠 丁壯者多被戮 常之恐懼 遂與左右十餘人 遁歸本部 鳩集亡逸 共保任存山 築柵 以自固 旬日而歸附者三萬餘人”.

21) 『三國史記』卷28, 百濟本紀6 義慈王20年 “常之與別部將沙吒相如據嶮 以應福信 至是皆降 仁軌以赤心示之 俾取任存自效 卽給鎧仗糧備 仁師曰 野心難信 若受甲濟粟 資寇便也 仁軌曰 吾觀相如常之 忠而謀 因機立功 尙何疑 二人訖取其城 遲受信委妻子 奔高句麗 餘黨悉平 仁師等振旅還”.

함으로써 전투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둘째 만약 敗戰하더라도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抵抗軍의 항전의지를 弱화시키고 內紛을 유도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자신의 장수였던 인물을 적군의 선봉으로 맞는 백제 부흥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비록 적군에 투항한 몸이지만 자신과 生死苦樂을 함께 했던 동료 장수와 자식 같은 병사들을 공격하면서 후치상지가 느껴졌을 自愧感은 또 얼마나 처절했을 것인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것은 自業自得이라 할 수 있으며 그의 末路를 보면 확실히 이를 알 수 있다. 黑齒常之는 당으로 들어가 벼슬을 받고 주변 종족을 정벌하고 반란을 진압하는 등 많은 戰功을 세워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그 자신 반란에 가담했다는 모함을 받아 결국 60세의 나이에 교수형에 처해짐으로써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마는 것이다.²²⁾

一身의 安全과 榮達만을 피하여 변신을 거듭하는 群像들은 高句麗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淵蓋蘇文의 맏아들 男生은 권력투쟁에서 밀리자 唐에 투항하고 이어 667(보장 26)년에는 唐軍의 길잡이가 되어 고구려를 공략하였다. 668(보장 27)년 초 高宗에게 올라온 戰況 報告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당군은) 반드시 이깁니다. 예전에 太宗이 고구려를 정벌하려다 실패한 것은 그 나라에 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군대는 중간 매개자가 없으면 중도에서 돌아온다’고 하였는데, 지금 男生 형제가 서로 다뤄 우리의 嚮導가 되었으니 적국의 동향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장병들은 충성되고 힘을 아끼지 않으니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입니다.²³⁾

22) 『舊唐書』卷109, 列傳59 黑齒常之.

같은 책, 卷196, 列傳146 吐蕃.

23) 『資治通鑑』卷201, 唐紀17 高宗 總章 元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남생은 食邑 3,000戶와 함께 고위 관직을 제수 받았다. 677년에는 新城(지금의 요녕성 무순시 고이산성)에 옮겨진 安東都護府에 파견되기도 했으며 2년 후 도호부 官舍에서 病死했다. 평양성 함락 직전에 투항한 男産도 우대를 받았으나 亡國의 귀족으로서 우울한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의 墓地銘에는 이를 가리켜 “홀륭한 저택에서 살면서 아침을 맞고 황제의 주위에서 아침마다 拜謁하니 勳功이 성대하나, 산하가 안으로 끊어졌으니 고국을 그리며 마음을 상하고 鐘鼓 소리에 근심만 깊어진다”라고 썼다.²⁴⁾

비교적 이민족에 대해 개방적이었던 당 조정도 적국 출신의 왕족, 귀족에 대해서는 견제와 감시를 늦추지 않았고 철저한 同化를 요구했으므로 이들이 運身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던 셈이다. 침략군의 무력에 압도당하고 회유에 현혹되어 항전을 포기한 이들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상대편을 分裂시킨 다음 그 가운데 포섭층을 앞세워 나머지를 공략·지배하게 하며, 결국은 포섭한 이들도 약화·소멸시켜버리는 당 제국의 以夷制夷 전략과 羈縻政策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2) 新羅의 對唐戰爭

이제 다시 就利山 會盟으로 돌아가 보자. 첫머리에 이 기이한 국제 회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지만, 당나라의 입장에서는 결코 이상한 모임이 아니었다. 백제지역을 대표하는 扶餘隆은 664년 劉仁軌의 뒤를 이어 熊津都督이 되었고 그 자격으로 참석했다. 663년 周留城과 任存城이 함락되어 격렬하게 전개되던 百濟 復興運動이 잦아들게 되었으므로 이제 당 장군

24) 『泉男生 墓誌銘』, “東明之裔 寔爲朝鮮 威胡制貊 通徐拒燕 憑險負固 厥古莫遷 爰逮有唐 化涵東戶 賓延渤澥 綏懷水滸 藍夷會同 桂婁董溥 惟彼過長 襲我龜組 遂榮藁街 爰兮棘列 甲第朝啓 承明且謁 勳懋象胥 龍均龍高 遽開青社 山河內絕 遼陽何許 故國傷心 鍾儀永恨 莊烏悲吟 旌旆啓戟 珮玉腰金 鼓鍾憂眩”.

출신보다는 百濟 王族을 내세워 유민들의 민심을 수습하고 지배를 영속화 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新羅와 맺은 軍事協定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文武王이 唐에 보낸 書信에 의하면, 648년 金春秋가 당에 건너가 백제, 고구려 정벌을 협의할 때, 太宗은 분명히 “평양 이남의 고구려 땅 그리고 백제 땅은 모두 신라에게 주어 길이 편안토록 하겠다”고 약조했다.²⁵⁾ 합동 작전의 대가로 唐은 平壤城 以北의 고구려 땅을 얻고 그 以南은 新羅가 차지하도록 상호 양해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협약은 당나라가 일방적으로 백제 故地에 熊津都督府를 설치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다.

泗泚城 공격을 당군이 주도하였고 함락 후에도 당군의 일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으므로 신라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어찌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고, 백제 부흥운동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당군의 힘을 빌어 이를 진압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므로 초기의 唐軍 占領은 용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흥군이 진압된 664년에도 都督府를 폐지하지 않고 더욱이 都督으로 백제 王子를 임명한 것은 당나라의 속셈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비록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당나라의 보호 아래 百濟 王朝의 復活을 도모한 것이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백제 멸망 이전의 대치상황으로 복귀한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한 걸음 더 나가 당은 663(문무 3)년에 신라 지역을 鷄林大都督府로 정하고 文武王을 계림대도독에 임명했다. 신라도 도독부 통치를 받는 당 영토의 일부이고 그 首長은 당 황제의 신하로서 그 명을 받아 통치를 위임받은 존재에 불과하게 된 것이다. 이전부터 당나라와 조공-책봉관계는 맺어져 있었지만 이는 外交의인 儀禮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신라를 도독부 치하에 둔 것은, 책봉국의 정치적 독립이 보장되고 현실적인 힘과 이해

25) 『三國史記』卷7, 新羅本記7 文武王11年 “先王貞觀二十二年 入朝 面奉太宗文皇帝恩勅 朕今伐高麗 非有他故 憐你新羅攝乎兩國 每被侵陵 靡有寧歲 山川土地 非我所食 玉帛子女 是我所有 我平定兩國 平壤已南 百濟土地 並乞你新羅 永爲安逸 垂以計會 賜以軍期”.

관계에 따라 국제관계의 향방이 결정되던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

백제와의 차이점은 문무왕의 관직에 ‘大’ 자가 붙여진 것과 새로운 도독을 임명하거나 군현을 획정하지 않고 기존 체제를 인정해 주었다는 것뿐이다. 이는 신라의 현실적인 힘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언제라도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면 구백제 세력을 앞세우거나 당이 직접 나서서 신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羅唐戰爭이 한창이던 674(문무 14)년 당에 가 있던 문무왕의 동생 金仁問을 신라왕으로 봉하고 그를 앞세워 신라를 침공함으로써 문무왕에 대한 책봉을 철회하고 기존의 신라 체제를 부정하였다.

손아귀에 들어온 백제 땅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아가 이제 국가의 존망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결국 665(문무 5)년의 취리산 회맹은 당 제국에 소속된 웅진도독부와 계림도독부의 최고위급 관리가 만나서 그간 쌓인 원한을 풀고 앞으로는 화합해서 당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자는 서약의 자리였다. 당 황제의 勅使가 맹약문을 작성한 것도, 신라 대표단이 불만에 가득 차 마지못해 참석한 것도, 웅진도독 扶餘隆이 신라를 두려워하여 長安으로 돌아간 것도 모두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新羅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즉 앞서 金春秋가 高句麗와의 和約에 실패하고 당에 건너갔을 때, 군사지원 요청과 더불어 신라의 法式과 官服을 고쳐 중국 제도를 따르겠노라고 했고 이에 응해 당 태종이 진귀한 복식을 내려주었던 것이다.²⁶⁾ 다음 해 신라 관리들은 당나라의 衣冠을 착용하기 시작했고 이어서 당의 年號를 사용하였으며 眞德王은 태종의 덕을 찬양하는 「太平頌」을 지어 바쳤다.

26) 魏 策, 卷5, 新羅本紀5 眞德王 元年 “春秋跪奏曰 臣之本國 僻在海隅 伏事天朝 積有歲年 而百濟強猾 屢肆侵凌 況往年大舉深入 攻陷數十城 以塞朝宗之路 若陛下不借天兵 翦除凶惡 則敵邑人民盡爲所虜 則梯航述職無復望矣 太宗深然之 許以出師 春秋又請改其章服 以從中華制”.

관리의 복식을 바꾼다는 것은 그 의미가 단순히 服制를 개정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당나라의 관복을 입음으로써 당 황제의 신하임을 자임하게 되는 것이고, 신라의 국왕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당나라의 일개 지방통치를 위임받아 당의 관료들을 中間 管理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연호 차용은 그 나라 제도·법식의 기준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압박으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군사 지원을 약속한 당나라에게 최대한의 성의를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를 다만 形式的인 制度改革 차원에서 활용했다. 당의 관복제도를 받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官等制가 고유의 신분제도인 骨品制의 제약을 이후에도 강고하게 받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신라 스스로 당의 屬國이 되기를 자처했을 리는 만무한 것이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는 軍事 支援을 해주는 대신, 신라마저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새로운 국제관계의 틀을 구축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신라 자신도 별로 부정적이지 않다는 外交的 判斷을 내렸음직하다. 7세기 중반의 급박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외정책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양국이 정작 양국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계산을 했던 셈이고, 이는 결국 군사동맹이 깨지고 급기야는 혈맹간에 전쟁이 발발하는 禍根이 되었다.

신라는 이러한 당의 의도를 간파했으나 高句麗와의 일전을 앞두고 경솔하게 행동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취리산 회맹에도 내키지 않지만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참석했다. 여기에는 뒷날을 기약하면서 名分을 쌓고자 하는 의도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668(문무 8)년 平壤城을 함락함으로써 당과의 협정사항 이행이 완수되자 신라는 행동으로 돌입했다. 이미 665(문무 5)년에 淵蓋蘇文의 동생 淵淨土가 12개 성을 들어 귀부한 것을 받아들여 그곳에 신라 兵力을 배치한 바 있고, 669(문무 9)년에는 연개소문의 조카 혹은 왕족으로 생각되는 安勝 무리를 받아 들였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듬해에 안승과 그가

거느리고 온 4천여 호를 金馬渚(지금의 전북 익산시)에 집단 거주시키고 안승을 高句麗王(뒤에 報德王으로 다시 봉함)으로 삼은 것이다.²⁷⁾

이 때는 이미 고구려가 멸망하여 寶藏王이 당으로 끌려가고 평양에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상태였다. 따라서 한반도는 ‘唐 朝廷 - 安東都護府 - 鷄林大都督府 · 熊津都督府’의 체계에 의해 다스려지는 셈이 된다. 이러한 통치체계에서 신라가 高句麗王을 세울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신라 국왕도 당 황제의 관리인 계림대도독을 겸하면서 가까스로 왕위를 유지하는 처지에, 亡國의 왕실을 당나라도 아닌 신라가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唐 중심의 一元的인 國際秩序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신라는 이를 단행했다. 그것도 당이 백제 왕족을 내세워 지배를 강화하고 신라를 견제하는 발판으로 삼았던 구백제 지역의 한복판에 高句麗 繼承國을 만든 것이다.

이는 다목적의 포석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구백제 지역에 이질적인 세력을 혼입시켜 당의 지배전략에 혼선을 일으키고 親新羅 세력을 扶植하는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로 웅진도독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安勝은 고구려 최고 지배층의 일원으로 신라에 투항해 왔다는 점에서, 백제 왕자로서 당에 투항한 웅진도독 扶餘隆과 공통점을 갖고 있고 이에 견줄만한 인물이다. 金馬渚에 안착하게 한 것도 이곳이 비옥한 평야지대일 뿐 아니라 백제 말기에 泗泚城에 버금가는 정치·문화적 중심지로 부상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신라가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봉함으로써 신라의 國體가 한 단계 격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王이 또 다른 王을 임명하여 세울 수는 없다. 그런데 신라는 비록 망국의 왕족으로 하여금 그 왕위를 잇게 한 것이지만 일국의 왕을 冊封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新羅 중

27) 嶺 載, 卷6, 新羅本紀6 文武王10年 “見高句麗大臣淵淨土之子安勝 迎致漢城中 奉以爲君 遣小兄多式等 哀告曰 興滅國 繼絕世 天下之公義也 惟大國是望 我國先王以失道見滅 今臣等得國貴族安勝 奉以爲君 願作藩屏 永世盡忠 王處之國西金馬渚 (中略) 封安勝爲高句麗王”.

심의 垂直的 國際秩序가 성립될 수 있었고 신라는 蕃屬國을 거느린 大國이라는 것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봉하는 문서도 皇帝의 인사명령서를 의미하는 ‘冊命文’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신라왕은 고구려의 後嗣 안승에게 책명을 내린다. (중략) 무릇 백성은 임금에 없어서는 안 되고 하늘은 반드시 이를 돌보아 명령을 내리는 법이다. 선왕의 후계자로는 오직 공이 있을 뿐이요 제사를 받들 이도 공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중략) 사신을 보내어 공으로 고구려왕을 삼으니, 마땅히 유민을 安集하고 옛 전통을 이으며 길이 착한 이웃이 되어 형제와 같이 밀접히 지낼지이다. 공경하고 공경하라!²⁸⁾

표면상으로는 兄弟國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報德國을 엄연히 하위국으로 설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왕실을 잇고 역대의 제사를 모실 후계자를 세워준다는 것은 이미 신라가 그 본국을 정벌하였고 그에 대한 慰撫 차원에서 이러한 시혜 조치가 이뤄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冊文과 함께 쌀 2000석 등의 선물을 내리고 나중에 문무왕이 조카딸을 보내 안승과 혼인시킨 것, 683(신문 3)년에 그를 金城으로 소환한 사실 등은 양국간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신라는 마치 諸侯國을 거느린 帝國처럼 행세함으로써, 한편으로 羈縻政策을 통해 한반도를 원격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군사력을 앞세워 直接 統治하려는 당나라의 지배전략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선 것이다. 양국은 서로 괴뢰정권을 내세워 치열한 外交戰을 벌이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에서는 이미 軍事的 衝突도 벌어지고 있었다. 유명한 花郎 官昌의 아버지 品日, 그리고 「慕竹旨郎歌」라는 鄉歌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竹旨 장군 등이 활약하여 눈부신 전과를 올렸고, 드디어 671(문무 11)년 泗泚城을

28) 嶺 策, 卷6, 新羅本紀6 文武王10年 “其冊曰 維咸亨元年歲次庚午秋八月一日辛丑 新羅王致命高句麗嗣子安勝 (中略) 夫百姓不可以無主 皇天必有以眷命 先王正嗣 唯公而已 主於祭祀 非公而誰 (中略) 公宜撫集遺民 紹興舊緒 永爲鄰國 事同昆弟 敬哉敬哉”.

함락하여 여기에 所夫里州를 설치했다. 이로써 신라는 先王 太宗의 약조마저 저버린 당 침략군을 武力으로 물리치고 옛 백제 땅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唐은 다시 劉仁軌, 薛仁貴, 李謹行의 대군을 파견하여 전세를 뒤집어보려 했으나 買肖城(지금의 경기도 양주 부근)과 伎伐浦(금강 하구)에서 신라군에게 격파 당했다.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던 당나라의 야욕은 이로써 좌절되고 신라는 실력으로 반도 남부를 통일한 것이다.

4. 맺 음 말

羅唐戰爭이 종료된 후에도 현재의 황해도 이북 지역은 여전히 당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요동 및 한반도 북부에 대한 통치기구인 安東都護府도 변천을 거듭하면서 756(경덕 15)년까지 유지되었다. 따라서 8세기 중엽 安祿山の 난으로 요동지역에 대한 지배가 급속하게 무너지기까지 고구려 故土 중 최소한 遼東地域에 대한 당의 지배는 확고했다.

이처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드넓은 만주평야와 한반도 북부지역을 당나라에 내준 것은 아쉬운 일임에 틀림없다. 삼국 중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나머지 나라들을 통합했다면 사정은 달라졌을 것이다. 받은 것이 없으면 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어느 나라도 그만한 여건에 있지 못했다. 外國軍을 끌어들이신라의 반민족적인 처사에 대해 비난하는 견해도 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 압박 속에서 존망의 갈림길에 선 신라로서는 당과의 연합이 최선은 아니지만, 불가피한 현실적 선택이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당시 세계 제일의 帝國이었던 당나라를 同盟軍도 없는 新羅가 단독으로 싸워 물리쳤다는 것은 外交·軍事的으로 높이 평가받아야 할 일대 사건이다.

이후 遼東地域에는 잠시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小高句麗國이 섰다가 소멸하고, 9세기 초에 渤海가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비로소 요동이 우리의 활동무대로 되돌아오게 된다. 현재의 황해도 지역도 735(성덕 34)년에야 唐의 양해 아래 신라가 진출할 수 있었다. 平壤 地域은 고구려 부흥운동과 나당전쟁의 주요 戰場이 되어 황폐해졌으며 안동도호부가 遼東城으로 옮겨간 이후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당, 신라, 발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한 채 후삼국시기까지 버려진 땅으로 남았다.²⁹⁾

백제 멸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동 지역에 발해 세력이 진출하여 옛 고구려 지역을 석권하기까지 무려 150여 년 동안 당나라는 우리 역사무대의 일부를 유린했다. 이를 통해서 선진적인 思想과 文物이 도입되어 우리 역사 발전에 자극제가 되기도 했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와 부작용은 훨씬 크고 깊었다. 異民族 치하에서 대부분의 人民은 자신의 운명을 主人에게 맡긴 채 奴隸의 길을 걸어야 했고 일부 출세한 인물들도 지배자의 수탈체제에 기생하는 구차한 삶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 세력 진출의 선두에는 항상 당 제국의 군대가 자리잡고 있었음을 잊을 수 없다. 막강한 軍事力을 기반으로 해서 당나라는 주변 오랑캐들을 아우른 동아시아의 大帝國을 건설할 수 있었고 당시 세계 최고수준의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만주와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는 당나라의 집요한 책동을 좌절시킨 동남방의 작은 오랑캐 新羅 또한 결코 그에 뒤지지 않는 軍事力과 탁월한 外交戰略을 갖추고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29) 盧泰敦, 1981 「高句麗 遺民史 研究」, 『韓沽勳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知識産業社
同, 1981 「渤海 建國의 背景」, 『大邱史學』 19.